

뉴라텍/NEWRACOM 소식 (2019년 4월)

2019. 4. 2.

◇ 뉴라컴 표준특허 “차세대 와이파이 칩셋 시장 본격 태동”과 함께 기지개

- 최근 SKT, KT, LG U+는 연일 TV 등 미디어를 통해 차세대 셀룰러 통신기술인 “5G”의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이에 대응해 와이파이 진영에서도 차세대 기술로 IEEE 802.11ax 표준 기반의 “와이파이6”를 시장에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무선통신 기술의 세대교체를 알리고 있음.
- 특히, 삼성전자는 현재 사전예약 판매 중인 “갤럭시 S10”에 와이파이6가 탑재되었음을 공표함. 해당 칩셋은 미국 최대 와이파이 생산기업인 브로드컴 제품으로 양사는 차세대 와이파이 칩셋 및 디바이스의 선두주자로서의 시장 평판을 유지함. 애플 또한 차기 제품인 아이폰11부터 와이파이6를 탑재할 계획으로 차세대 와이파이 시장의 본격적인 태동을 알림.
- 이와 관련하여, 뉴라텍 미국 자회사인 뉴라컴은 지난 2014년 설립 시부터 와이파이6에 대한 국제표준화에 참여한 핵심기업으로서 세계 Top4 수준의 표준화 기여 및 이에 기반한 표준 특허 발명·확보가 이번 시장 태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
- 뉴라컴이 확보하고 있는 표준 관련한 등록 특허는 3월 현재 총 113건이며, 출원이 완료된 198건은 현재 순차적 등록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음.

[뉴라컴 및 뉴라텍 특허 보유 현황]

구 분	국 가						계
	PCT	미국	한국	중국	유럽	기타	
출원(등록 심사 중)	23	76	67	5	12	15	198
등록		102	8		3		113
계	23	178	75	5	15	15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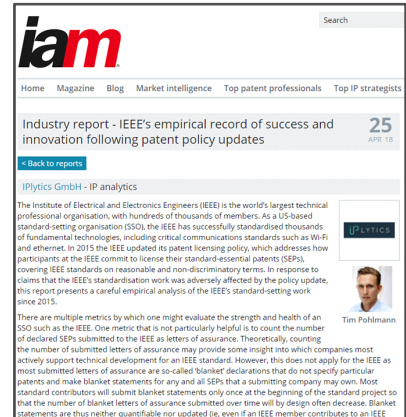
-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ABI Research(에이비아이리서치)가 전망한 2019~2023년 기간 중의 Wi-Fi6 칩셋 출하량의 경우, 2019년에 4천 8백만 개에서 2023년에는 12억 8천 8백만 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동 기간 중 무려 33억 7천만 개의 시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뉴라컴, 차세대 와이파이(Wi-Fi) 표준채택 기술공헌도 세계 4위”, 글로벌 공룡기업 간 Top 10 순위싸움에서 국내외 중소기업으로선 유일하게 이름 올려

- 특허, 표준 등 무형자산(IP) 비즈니스에 대한 최신의 전문 소식을 전하는 저명한 미디어 그룹인 IAM에서는 최근 가장 왕성한 국제표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IEEE(국제 전기전자기술협회) 802.11(와이파이 표준화그룹)의 최근 실적에 관한 분석 기사를 실어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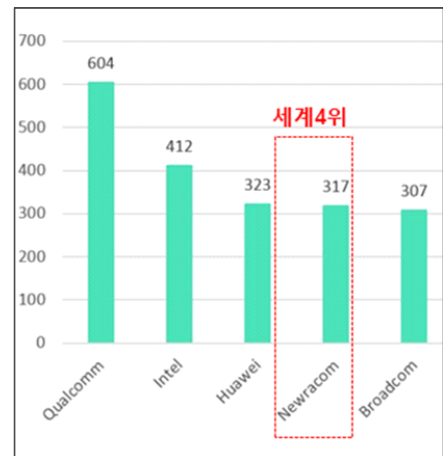
※ IAM 산업보고서 “특허정책 변화에 따른 IEEE의 성공과 혁신에 관한 경험적 기록”

<http://www.iam-media.com/industryreports/Detail.aspx?g=9387cda6-6924-4782-9a90-e5f2f5ac64cb>



- 이에 따르면, IEEE가 와이파이 관련된 수천 건의 표준기술 채택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하면서, 차세대 와이파이6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화 활동이 가장 왕성했다고 밝힘. 이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 발행된 표준화문서 수, 2) 제출된 기술고서, 3) 공헌도를 기준으로 글로벌 Top 10 기업을 발표함.

- 표준기고 글로벌 Top 10 기업으로는 퀄컴(604건)이 수위를 차지했으며, 인텔(412건), 화웨이(323건)에 이어, 뉴라컴의 미국 자회사인 뉴라컴이 317점으로 **당당히 4위를 차지**. 5위에는 세계 최대 와이파이 칩 생산업체인 브로드컴(307건)이, 뒤를 이어서는 마벨, 미디어텍, LG, ZTE, 애플이 각각 6~10위를 차지



- 특히 Top 10 기업 중 NEWRACOM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출액/수익 규모 및 종업원 수에 있어 초우량 글로벌 기업으로서 뉴라컴이 국내외 중소기업 최초로 이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점을 공식 확인시켜 줌.

[IAM 산업보고서가 인용한 그래프]

Global Top 5 표준기술기고 기업들